<u> 주</u> 원씨앤아이	스트레이트뉴스	정기	저국	여론조사
74/4/11/01/01	"\"_ _	0 1		~

		1 1
ID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트레이트뉴스의 의뢰로 최근 정치·사회현안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고 있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입니다. 짧은 조사이오니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원씨앤아이 전화번호는 02-6746-8517입니다.

Part SQ. 응답자 선별 문항

SQ1.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다음 어느 구간에 속하십니까?

17세 이하1번40대4번18세부터 29세2번50대5번30대3번60세 이상6번

(1번: 만 17세 이하 ▶ 조사 중단)

SQ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성 1번 여성 2번.

SQ3. 귀하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음 중 어느 지역입니까?

1번, 서울 2번, 경기 3번, 인천 4번, 대전 5번, 충남 6번, 충북 7번, 세종 8번, 광주 9번, 전남 10번, 전북 11번, 대구 12번, 경북 13번, 부산 14번, 울산 15번, 경남 16번, 강원 17번, 제주

Part A. 정치 현안

QA01. 귀하께서는 평소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보기는 국회 의석 순입니다.

더불어민주당1번기타 정당4번국민의힘2번지지하는 정당 없다5번정의당3번잘 모르겠다6번

QA02. 귀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고, 혹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1번
 매우 잘못하고 있다
 4번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2번
 잘 모르겠다
 5번

어느 정도 잘못하고 있다 3번

QA03. 귀하께서는 내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다음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원활한 국정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1번 현 정권 견제를 위해서 제1야당인 민주당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2번 기존 양당이 아닌 제3세력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 3번 QA04.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정관계 인사와 경제인 등을 대상으로 광복절 특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대통령의 특별사면 추진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한다1번매우 반대한다4번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2번잘 모르겠다5번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3번

QA05.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가 김남국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의 코인 거래내역을 공개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모두를 대상으로 코인거래를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국민권익위의 코인거래 전수조사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1번매우 필요하다4번별로 필요하지 않다2번잘 모르겠다5번

어느 정도 필요하다 3번

QA06. 귀하께서는 최근 발생한 서이초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같은 교권 침해 사례의 가장 큰 원인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기 로테이션)

학교/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 1번 교권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인식 부족 4번 지나친 학생인권 강조 2번 잘 모르겠다 5번

미흡한 교권침해 행위 법적 처벌 3번

Part B. 경제 현안

QB01. 귀하께서 국내외 여행 시 가장 선호하는 국내 항공사는 어디입니까? (보기 로테이션)

대한항공 1번 에어부산 6번 아시아나 항공 2번 에어서울 7번 제주항공 3번 이스타 항공 8번 티웨이 항공 기타 다른 업체 9번 4번 진에어 잘 모르겠다 5번 10번

OB02. 귀하께서는 향후 1년 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현재 보다 상승할 것 같다1번,현재보다 하락할 것 같다3번,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2번,잘 모르겠다4번

Demo. 배경 질문

Demo01. 귀하의 이념적 성향은 진보, 중도, 보수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보 1번, 보수 3번, 중도 2번, 잘 모르겠다 4번

- □ 종료 인사: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조사 중단: 죄송합니다. 귀하는 조사대상이 아니십니다. 조사를 중단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 ◘ 할당 초과: 죄송합니다. 귀하의 연령대, 성별, 지역은 더 이상 응답을 받지 않습니다. 조사를 중단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